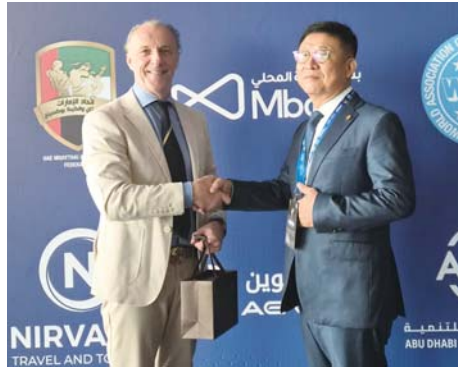


“재정 정상화 원년 선언” | 김현영 대한킥복싱협회 회장 협회 정상화 · 재도약 공식화

대한킥복싱협회 김현영 회장(사진)이 협회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화했다. 대한킥복싱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정 정상화 및 조직 혁신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현영 회장은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영 회장은 이사회에서 “지금은 대한킥복싱협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 대한민국 킥복싱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갑대환·김윤진·김창성 신임 이사 선임 △재정 관리 규정 제정 △단체장 임명 기준 마련 등 협회의 근간을 재정비하는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현영 회장은 재정 정상화 선언과 함께 전임 집행부의 재정 및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단일 공식계좌 운영 및 회계 관리 규정 강화를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협회는 심판·지도자 교육 및 자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랭킹 시스템을



로이 베이커 세계연맹 회장과 악수를 나누는 김현영 회장.

통합 운영하는 등 전문 체육 단체로서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영 회장은 “제도과 시스템이 바로 서야 협회가 바로 선다”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킥복싱협회는 오는 2026년 5월 16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대한킥복싱협회제5대 김현영 회장 취임식’을 개최



전국 선수권대회 포스터.

한다. 이번 행사는 김현영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회 전날인 5월 15일에는 각종 위원장 위촉식 및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김현영 회장은 “이번 대회와 취임식은 대한킥복싱협회의 재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선수과 지도자, 관계자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영 신임 회장은 전)대한킥복싱협회 부회장, 전) 전북특별자치도킥복싱협회장, 전) 정읍시킥복싱협회장, 전) 정읍경찰서합격시험위원회위원장, 전) 정읍법무부교정협의회 위원, 현) 사남권상공회회장, 현) 정읍원마트 대표이사, 현) 윈스튜디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성교회행복노인복지센터, 어르신 효 잔치

정읍 성교회행복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현주)는 제54회 어버이날을 앞둔 6일 정읍시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효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선언에 이은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공연 순으로 치러졌다. 특히 2부 문화 공연에서는 지역 농악단의 신명 나는 가락을 시작으로 전주문화방송(MBC)의 신나는 예술버스가 선보이는 마술 무용 무예 트로트 무대가 이어졌다. 여기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재능기부 판소리 공연까지 더해져 참석한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북전주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식

북전주농협은 지난달 3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학업에 힘쓰는 조합원과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28명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총 약 4,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오성근 기자



남원시보건소, '튼튼혈관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튼튼혈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튼튼혈관 건강교실은 읍·면 지역 경로당 16개소에서 5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되며,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혈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중풍 및 치매예방교육 △우울 및 감염병 예방교육 △구강 및 영양관리,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 체조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중보건(한방·치과), 영양사, 운동 강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해경, 위도 해상서 손가락 절단 응급환자 이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병덕)는 6일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부안군 위도 서방 약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의 선원 B씨(40대, 남)가 작업 중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환자를 즉각적인 지혈과 환부 보호 등 긴급 응급처치로 신속하게 격포함으로 이송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광활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용)은 지난 4일 점포내방 고객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이 담긴 피해예방 10계명 안내장을 배포하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해킹자 출하대금정산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금융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기자

“53년 봉사의 길, 나눔으로 완성”

임규래 적십자 전국대의원, 1200만원 사회 환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6일 임규래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걸은 봉사의 길과 그 철학이 오롯이 담긴 ‘삶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나눔은 순간의 선택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신념과 실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 전국대의원은 지난 4월 18일 국제레드리프 제3670지구와 JTV 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한 ‘초야의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성금에 사비를 더해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 영예의 순간을 개인의 기쁨으로 남기지 않고 이웃과 나누겠다는 그의 선택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봉사는 결코 혼자 이룬 길이 아닙니다.”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다. 그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여전히 우리 곁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다. 작은 불빛일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꾸밈없는 그의 언어는 오랜 실천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다가온다. 1974년 첫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53년, 임 전국대 의원의 삶은 곧 봉사의 역사였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북협의회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왔고, 현재도 전국 대의원으로서는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헌신은 2024년 국민포장 수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인정도 받



았다. 특히 이번 수상 이후 이어진 그의 행보는 더욱 큰 감동을 전한다. 성금 1천만 원 가운데 500만원을 국제레드리프 제3670지구에 불우이웃을 도와주라며 기부하고, 200만 원을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친정봉사회에 전달했으며,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게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총 1,200만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상의 무게를 나눔으로 덜어낸 그의 선택은 ‘봉사가 삶이 된 사람’의 깊이를 보여준다. 임 전국대 의원의 나눔은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손자녀들과 함께 매년 돼지저금통을 모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가며, 나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고사리손으로 시작된 작은 실천이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봉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임규래 전국대 의원에겐 그것은 곧 삶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이어서 그의 발걸음은 이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또 다른 나눔을 받고 있다. 그의 손에서 시작된 따뜻한 온기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만호기자

풍남문화광장서 개최 ‘제2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성료

익산 거주 최승권씨, ‘대상’ 영예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WBC복합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과 전주시장에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5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장애인가요제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과 장애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사)행복드림복지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대건선협, 백송화관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양국 대회 본부장 김철환 제전위원장, 이수정 추진위원장, 백현규 후원위원장과 서강원 준비위원장, 강정원·유태성 진행위원장, 남윤향 재무위원장 등 내빈들과 시민 350여명이 참석했다. 유태성, 강정원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가요제 본선, 공로 표창장 수여식,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12명의 본선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가수 진문택, 이경식 이수정, 구재명 한승이 정도현, 도도희 송희숙 정순임, 김민주 배수진 김하진 등의 축하 공연은 이날 가요제의 흥을 더 돋구었다.



이날 가요제에서 대상의 영예는 최승권(익산)씨에게 돌아갔다. 강창일(충남 예산)씨는 금상을 수상받았다. 신의상(전주)씨와 김정은(전주)씨는 은상을, 전형중(전남 목포)씨와 김수정(전주)씨는 동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희영(전주)씨와 유은식(전주)씨는 장려상을, 김동진(경남 진주)씨와 이종원(완주)씨가 인기상을 수상받았으며, 안효진(전주)씨와 윤석주(전주)씨는 도전상을 받았다. 함께 진행된 대회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원운민, 유태성, 구재명, 김봉래, 김숙희, 김선례, 남윤향, 고현주, 조범석 씨가 대회 공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아동보호시설에 사랑의 기부금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 이하 협의회)에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정비 등 환경 개선 △아동 양육비용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총 50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으로 도내 5개 아동보호시설에 나누어 전달된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금동 지사협,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 추진

남원시 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기 나눔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영양 만점 반찬 4종(시래기된장국, 간장불고기, 미나리무생채, 파리고추멸치볶음)를 직접 정성껏 조리해 따뜻한 안부를 묻는 마음을 담아 각 가정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추진

남원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윤자)는 고령 어르신에게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인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요인이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맞춤형복지팀(문의, 063-620-4098)이 직접 현장으로 발을 넓히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사매면, 국가유공자 가정 등 방문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8일까지, 관내 국가유공자 및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사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어 드리는 정서적 교류도 이루어지며, 간식 꾸러미는 사매면 복합문화공간 매화 언덕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